



**오늘의 성가**

입당	72	다볼 산의 예수	성체	165 159	주의 잔치 세상의 참된 행복
봉헌	511 220	미약하온 우리 제물 생활한 제물	파견	124	은혜로운 회개의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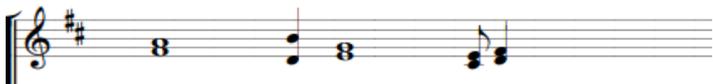
**말씀의 초대** ■ 주님께서서는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땅을 후손에게 준다고 하신다(제 1 독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한다(제 2 독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시어 기도 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인다(복음).

**제 1 독서**

<하느님께서서는 충성스러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다>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5,5-12,17-18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 하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람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데아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이다.” 아브람이 “주 하느님, 제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삼 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삼 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삼 년 된 숫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반으로 잘라, 잘린 반쪽들을 마주 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날짐승 들은 자르지 않았다. 맹금들이 죽은 짐승들 위로 날아들자, 아브람은 그것들을 쫓아냈다. 해 질 무렵, 아브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는데, 공포와 질은 암흑이 그를 휩쌌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 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 주님께서서는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7(26),1,7-8,9,13-14(◎ 1 가)



**후렴.**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  
 ○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주소서.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주님, 당신을 생각하나이다.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  
 ○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당신은 저를 돕는 분이시옵니다.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제 2 독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3,17-4,1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화관인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마태 4,4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28 ~-36  
 그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생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명자(세실리아)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한정숙(레지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성태영(바오로), 성용순(미카엘라)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김명자(헬레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김교식(야고보)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김응호(알레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김준호(베드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이영주님의 영혼을 위하여 - 임수영(율리아)/이은하</li> <li>▪ 설옥순(요안나)의 영혼을 위하여 - 한광동(바오로) 가족</li> <li>▪ 영명 축일을 맞아 이동현(요셉)의 영혼을 위하여 - 이순재(마리아)</li> <li>▪ 성구순(마리아)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백종습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한창수님의 영혼을 위하여 - 한상철(빈첸시오) 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도, 수도자의 성소의 은총을 구하며 - 성소후원회</li> <li>▪ 김경희(수산나) 빠른 회복을 위하여 - 수랏상</li> <li>▪ 임수경(미카엘라)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임수영(율리아)</li> <li>▪ 김비오, 마리안나 가정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최 율리야나</li> <li>▪ 생일을 맞은 올리비아, 제이(퀸틸라)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가족</li> </ul>

 **지난 주 우리의 정성**

주일 헌금	\$1,069	주일 미사 참례자 수	172 명
이차 헌금	\$344		
교무금 (\$2,610)	양영길(3-4)    박락준(3)    우성현(1-12)    임안나(1-2)    오경선(3-4)    이호용(2-3) 이은레(1-12)    김수길(3-4)    백원선(1-3)    성낙순, 이순영(2-3)		
• 교무금, 개인 감사헌금,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헌금 - Payable to <i>Our Lady of Mercy</i> 또는 <i>OLM</i> (월, 세대주 이름 및 본명을 꼭 기입해 주십시오) 교무금과 감사헌금은 봉헌함에 넣지 마시고 사무장에게 직접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체 소식**

**◆ 2019 Bishop's Annual Appeal In-Pew Weekend**

- 신자석에 비치된 봉투를 이용하여 Bishop's Annual Appeal 금액을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 헌금액은 지속적 복음화와 선교사업에 쓰이며 신학생, 청소년 양성 및 가난하고 소외된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되며 2019년 본당 할당금액은 \$35,000이며, 3월 14일까지 납부된 금액은 \$4,241(13.51%) 입니다.

**◆ 십자가의 길**

- 사순시기 동안 미사 시작 30분전 11시부터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 단체별 봉사 일정 : 3/17 프란체스코회 3/24 대건회  
3/31 야고보회 4/7 청년회

**◆ 부활 판공 성사**

- 일시: 4월 5일(금) 저녁 7시 30분
- 장소: 성당

**◆ 부활포장마차 안내**

- 4월 21일 부활대축일 미사 후 대건회 주관으로 부활포장마차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Lenten Day of Recollection for Priests**

- 3월 20일(수) 은 주임 신부님께서 교구청 주관 사제 피정에 참여하시므로 사제관에 계시지 않습니다.

**◆ 전례분과원 모집**

- 전례분과(해설, 독서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전례분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례분과 담당자 연락처 908-930-9863

**◆ 도서 기증**

- 친교실 도서방에 신간 도서를 기증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자 주소록 업데이트**

- 친교실 성물대 옆에 공시된 주소록 계속 확인바랍니다. 주소 수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 주소 및 연락처를 작성하셔서 사무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 3월 푸드 콜렉션**

- 푸드 콜렉션이 3/30-3/31 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 가지고 오신 비 신선식품을 성당 입구에 비치된 상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성당 시설 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성당 시설 관리를 도와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마트 상품권

•성모회에서 H마트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철 프란치스코, 장인석 미카엘,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오옥순 수산나, 정영옥 수산나, 최혜경 데레사, 최경삼 안나, 김귀옥 실비아, 김경희 수산나

◆소공동체 소식

◆전례회의

- 일시: 3월 17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내 회의실  
- 성가대, 복사단을 제외한 전례분과(독서, 해설, 성체분배, 제대회) 확대회의로 진행됩니다.

◆레지오 마리아 아치에스 행사

- 일시: 3월 17일(일) 미사 후  
- 장소: 성당

◆야고보회 모임

- 일시: 3월 17일(일) 미사 후  
- 장소: 최두철(요셉) 형제님택

◆구역모임

•썸머셋  
- 일시 및 장소: 3월 17일(일) 미사 후 친교실

•이스트브린스워  
- 일시: 3월 23일(토) 저녁 7시  
- 장소: 박정훈(베드로) 형제님택

•피스카타웨이/우드브릿지  
- 일시 및 장소: 3월 24일(일) 미사 후 친교실

•럿거스  
- 일시 및 장소: 3월 24일(일) 미사 후  
- 장소: 나채국(제노) 형제님택

•사우스브린스워  
- 일시 및 장소: 3월 31일(일) 미사 후  
- 장소: 한상철(빈첸시오) 형제님택

◆성 요셉 성월 기도

-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요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주소서. ◎ 아멘.

◆삼중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주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 기도합시다.
- 하느님, 천사의 아람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복음 묵상 나눔 질문

◎ 복음 나눔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복음 안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 주시는지를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나눕니다

✦ 루카 9, 28 ~ 36 (사순 제 2주일)

“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루카 9,29)

1.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굴과 의복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 중에 하느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부터 뜨거워지는 체험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루카 9,30)

2. 예수님께서 영광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셨을까요?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루카 9,35)

3. 신비로운 구름 속에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성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응답했나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